

제35차 사랑의 헌혈 행사...성도들 생명 나눔에 동참



제35차 사랑의 헌혈 행사가 12일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진행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명 나눔에 동참했다. 총 338명이 참여했고 이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89명을 제외한 249명의 성도가 헌혈을 했다. 헌혈 증서는 127장이 기증됐다. 이번 헌혈은 세계 헌혈자의 날(14일)을 앞두고 열려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다.

안수집사회는 행사 직전 베다니광장에서 200여 명의 봉사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영훈 담임목사는 안수집사들을 격려하고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육체와 상한 심령을 치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며 “헌혈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내 자신의 건강도 돌볼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실천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행사에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범섭 장로회장과 제직봉사위원장 김경주 장로, 안수집사회 증경회장들도 참석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기도했다. 신범섭 장로회장은 “이 행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겠다”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헌혈 행사를 주관한 안수집사회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헌혈행사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베다니홀과 교회 인근에 배치된 헌혈버스에서 실시됐다. 안수집사회원들은 30℃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또한 성도들이 헌혈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자문진을 돕고 헌혈버스 앞에서 이동을 도왔다.

헌혈은 만 16세에서 69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남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65세 이상 헌혈자의 경우 이전 헌혈 경험이 있고 헌혈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 하에 진행한다. 생명을 살리는 의술이 발전했음에도 다른 장기와 달리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다. 대한산업

이영훈 목사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강조 안수집사회 세계선교 후원금 1000만원 기탁

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운영주 선임차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헌혈량이 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아직도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며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의지를 갖고 헌혈을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기부된 혈액은 안정성 검사 후 병원에서 혈액이 필요한 백혈병 환자들이나 투석하는 분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헌혈은 문진부터 채혈, 안정시간까지 3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생명 나눔 활동이다. 무엇보다 헌혈을 하면서 기본 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어 헌혈자의 건강에도 긍정적이다. 헌혈에 동참한 정혜정 집사(양천대교구)는 “5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헌혈을 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혈액이 필요한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현미 집사(서대문대교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매년 빠지지 않고 헌혈



에 참여하려고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의수 안수집사회장은 “제35차 헌혈 행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안수집사회는 앞으로도 성도를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수집사회는 이날 세계선교 후원금 1000만원을 이영훈 목사에게 기탁했다.

글·김주영 / 사진·김용두 기자



순복음 실업인들의 축제 ‘제46회 실업인의 날’ 개최

이영훈 목사 “거룩한 꿈꾸며 승리하는 실업인 되길”

제46회 실업인의 날 행사가 10일 대성전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업인’이란 표어 아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7개 본부와 직능별, 지역별로 설립된 22개 지선교회, 6개 지회로 구성돼있다. 각 지선교회와 지회는 입장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며 진취적인 선교비전을 세웠다.

축대에예배는 회장 정중시 장로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했다. 실업인들은 ‘순복음 실업인의 노래’를 합창하며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사역을 회복하고 선교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증경회장 안병광 장로의 기도, 실업인 대교구장 황윤성 목사의 성경봉독, 뽀라콰이어의 찬양, 이사장 이영훈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다. 이영훈 목사는 “꾸어줄 자라도 꾸지 아니하며”(신 28:12~14)를 제목으로 설교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는 올바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사업이 잘된다는 부요의식을 가지면 기쁨과 희망이 넘치고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된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면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며 하나님에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볼 것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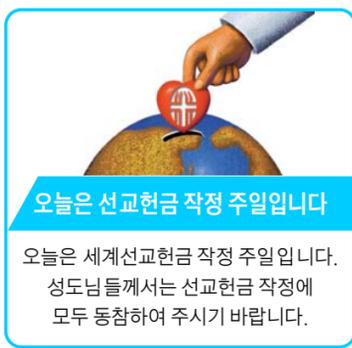
또한 “교만의 우상을 제거하고 불신, 탐욕,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실업인들이 되길 축복했다.

실업인 홍보영상 방영 후 이영훈 목사는 실업인선교연합회 선교사역에 후원한 서히문 성도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전승재 운영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이영훈 목사는 우수선교회로 선정된 문화체육·농어촌·동아시아 북한·미주선교회와 새생복지회를 시상했다. 음악연예인선교회 핸드벨콰이어

는 헌금송으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를 연주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회장 정중시 장로는 “지난 46년의 사역을 맡겨준 삼아 더욱 힘차게 도약하는 실업인선교연합회가 되겠다. 이사장 이영훈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적극 후원하고 세계만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이미나 / 사진·김용두 기자



오늘은 선교헌금 작성 주일입니다.
오늘은 세계선교헌금 작성 주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선교헌금 작성에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성 제71차 제2회 정기임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1차 제2회 정기임원회와 제71차 제2회 상임운영위원회가 16일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유담마리나호텔 마린시티홀에서 개최됐다. 박광수 재단이사장의 지도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서기·총무·재정보고 후 제71차 총회 각 국장 및 위원장 인준의 건, 홍콩신학교 인준의 건, 교회·교역자 가입 및 변동 인준의 건 등의 안건이 결의됐다.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10월 12~14일 개최되는 제26회 세계오순절대회와 관련해 “12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목회자 콘퍼런스를, 14일에는 임진각 평

화누리공원에서 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기도회에는 세계오순절 대표와 성도들 5000여 명과 웨슬리안 교단협의회 소속 교단에서도 함께 참석해 3만 5000여 명의 규모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하성 총회에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근·정동근 총회장과 엄진용 총무, 박경표 장로를 비롯한 부회장단, 10개 지역총연합회장단과 임원들이 참석했고 순복음북미총회장 안현 목사와 여의도순복음떡연교회 김춘기 목사도 함께했다.

금지환 기자

“순복음가족신문이 새롭게 바뀝니다!”

PDF와 연동된 모바일 버전 홈페이지 선보여

순복음가족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가 7월 1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개편된 가족신문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모바일 버전 홈페이지이다. 그동안 가족신문 홈페이지는 PC버전으로만 제공돼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으려면 손으로 여러 번 확대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리뉴얼된 모바일 웹페이지는 스마트기기의 화면 크기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돼 확대를 하거나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도 편하게 기사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검색 기능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됐다. 찾고자 하는 기사의 대략적인 날짜 지정과 기자명을 한 번에 설정하는 필터 기능이 추가돼 손쉽게 기사를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발송되는 PDF파일로 만들어진 온라인 지면신문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7월 3일자 신문부터는 발송되는 메시지에서 별도의 설치나 링크 없이 클릭 한번으로 PDF 지면 신문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싶은 신문 기사를 터치하면 모바일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기능도 추가됐다.

금지환 기자